상승세 탄 KIA '문 단속'이 상위권 안착 가른다

타이거즈 전망대

선발야구로 지난주 5승 1패
이민우·임기영, 안정감 높여
부족한 불펜 자원은 여전한 고민

이번주 KT·LG와 주중 6연전
역전패·역전승 명수와 만남

양현종, 통산 140승 -1
김선빈, 1000안타 -5
나지완, 타이거즈 최다 홈런 -1

기분 좋은 연승 뒤 연패를 조심해야 한다.

시즌 첫 스윕과 5연승까지 이룬 KIA타이거즈가 새로운 한 주 '뒷심' 대결에 나선다. 주중 수원에서 KT 위즈와 상대하는 KIA는 주말에는 안방으로 돌아와 2위 LG 트윈스와 만난다.

KIA는 지난주 '반전의 시간'을 보냈다.

롯데와의 홈 3연전에서 시즌 첫 스윕을 장식한 KIA는 아쉽게 연장 승부에서 승리를 내줬지만 SK 원정에서 위닝시리즈를 챙기며 5연승을 이뤘다.

'꾸준함'이 관건이었던 이민우와 '이닝'이 고민이었던 임기영이 마운드 높이를 높여주는 등 선발의 힘이 있었다.

두 경기에 출격한 이민우가 6이닝 2실점, 7이닝 3실점(1자책점)으로 선발 역할을 완수했다. 특히 19일에는 컨디션 난조에도 선발진 퀄리티스타트의 시작점이 되어주었다.

두 번의 선발 등판에서 8이닝에 그쳤던 임기영은 21일 세 번째 등판에서는 한 번에 8이닝을 소화하며 우려를 털어냈다.

선발진 뒤에는 든든한 불펜진도 있었다.

'미스터 제로'의 전상현과 '불펜의 마당쇠' 박준표에 이어 마무리 문경찬도 구위와 자신감을 찾으면서 뚝심으로 승부를 하고 있다. 지난 시즌 '박하전문'을 구성했던 좌완 하준영이 팔꿈치 수술로 빠진 자리에는 김명찬이 합류했다.

구색이 갖춰진 마운드에 터커, 최형우, 나지완 등 중심 타자들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이끌어준 덕분에 KIA는 기분 좋은 연승을 달렸다.

새로운 한 주 '초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연승 뒤 연패를 경계해야 한다. 첫 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선발진 호투 릴레이의 바통이 다시 가뇽에게 넘어왔다. 앞선 등판에서 공·수에서 야수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첫승을 신고했던 가뇽이 선발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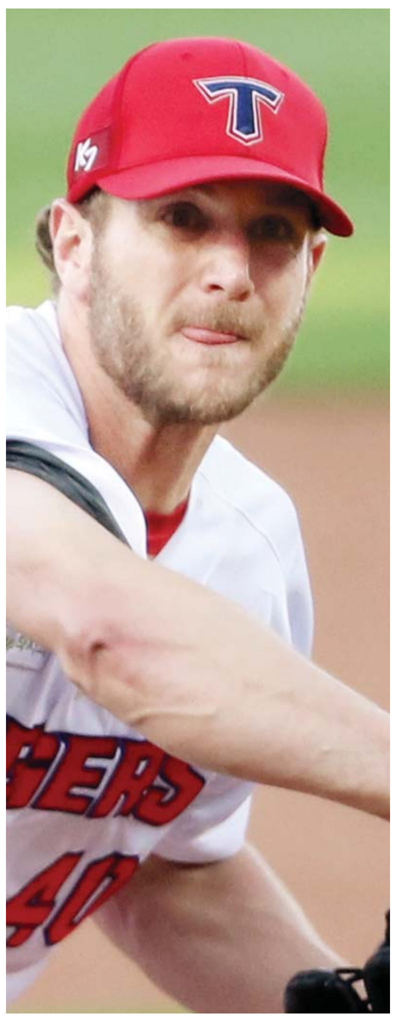
지난 24일 경기가 연장승부까지 가면서 불펜의 핵심 전상현, 박준표, 문경찬의 부담이 컸다. 하루 휴식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연승 과정에서 박준표가 특히 바쁘게 움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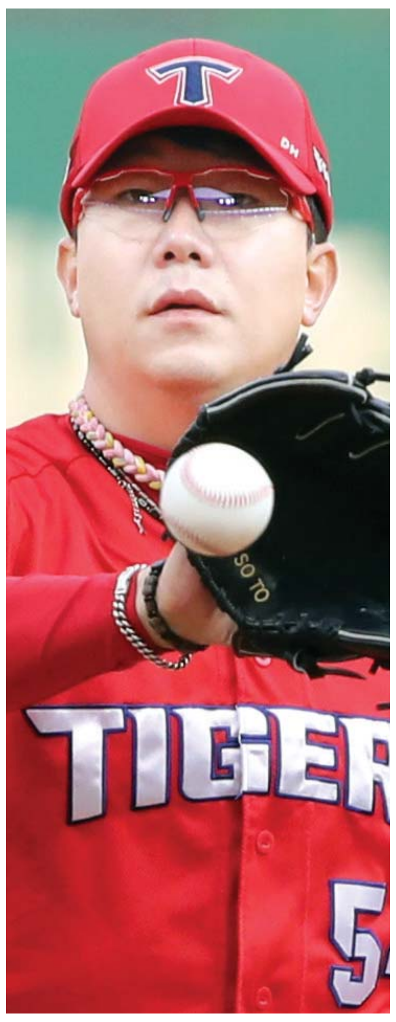
이들 외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이 부족한 부분도 고민이다. 필승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선발진의 이닝, 야수진의 화력과 수비가 필요하다.

이번 한 주는 엇갈린 '뒷심' 팀과의 대결이다.

KT는 타율 0.320(2위), 119득점·112타점(1위), 홈런 19개(3위), 장타율 0.496(1위) 등 좋은 공격 지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뒷문이 불안하다.

앞선 10패 중 7패가 역전패, 6개의 블론 세이브가 기록됐다. 부진을 면치 못한 마무리 이대은을 결국 2군으로 내려보냈지만 지난 24일 LG와 경기에서도 7-4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라모스에게 끝내기 만루홈런을 허용하는 등 최악의 뒷심을 보이고 있다.


가뇽


양현종

나지완

김선빈

반대로 LG는 뒷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앞선 22일에도 LG는 김현수의 안타로 끝내기 승을 연출했다.

불펜의 힘도 좋다. LG는 올 시즌 불펜 평균자책점이 3.57로 가장 낮다. KIA, 삼성과 함께 개막 이후 블론세이브를 기록하지 않은 팀이기도 하다.

KIA가 다른 뒷심으로 울고 웃는 KT와 LG를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한편 타이거즈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 3인방이 기록 쌓기에 나선다.

양현종이 다음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되면 KBO 리그 역대 5번째로 140승 고지를 밟는다. 김선빈은 안타 5개를 추가하면 1000안타를 채우게 된다. 통산 97번째.

나지완은 한 번만 더 담장을 넘기면 '레전드' 김성한을 넘어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주인공(208개)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KBO 리그 내년 복귀 가능

음주 물의 1년 징계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가 임의탈퇴 복귀 후 1년간 유기실력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받았다.

KBO는 25일 야구회관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히어로즈 임의탈퇴선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강정호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했다.

상벌위원회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한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 제재로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다. 또 봉사 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강정호는 조사 과정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강정호의 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팬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KBO의 징계 수위는 여론, 예상과 달리 낮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빠르면 내년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무패행진'

K리그2 개막 후 3경기 연속 … 최효진, 통산 400경기 출장

전남드래곤즈가 연승에는 실패했지만 세 경기 연속 무패행진은 이었다.

전남이 지난 24일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2 3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앞선 2라운드 제주전 1-0 승리 이후 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세 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다. 개막 후 1승 2무(승점 5)를 기록한 전남은 5위, 부천FC 1995는 3연승 행진으로 K리그2 선두 자리를 지켰다.

연승과 함께 '무실점'에 관심이 쏠렸던 경기. 앞선 두 경기에서 실점을 하지 않았던 전남은 골키퍼 박준혁을 필두로 박대한, 박찬용, 김주원, 이유현으로 수비진을 구성했다.

이종호, 임창균, 황기욱, 하승운이 중앙에 포진했고, 정재희와 쥴리안이 투톱으로 공격 전면에 나섰다.

양 팀은 시작부터 슈팅을 주고받으면서 팽팽한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전반 8분 정재희가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 위를 지나갔다. 전반 33분에는 하승운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매섭게 공이 날아갔지만 아쉽게 상대 골대를 뚫지는 못했다.

전남 전경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쥴리안을 빼고 추정호를 투입해 변화를 줬다. 하지만 꾸준한 공세에도 득점에 실패한 전남은 골키퍼 박준혁의 슈퍼세이브로 몇 차례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반 17분 서울이랜드 수쿠타-파수의 매서운 헤더가 나왔다. 실점 위기에서 박준혁이 손을 뻗어

최효진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던 공을 쳐냈다. 후반 42분에는 문전 경합 과정에서 수비수 김주원 머리에 맞고 떨어진 공이 굴절돼 전남 골대로 향하는 것을 막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원정길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전남은 27일 오후 7시 안방에서 충남 아산을 상대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한편 전남 베테랑 최효진은 이날 교체 투입되면서 400경기 출장이라는 대위업을 달성했다. 400경기 출장은 김병지, 이동국, 김용대, 현영민 등에 이어 K리그 통산 15번째 기록이다. 필드 플레이어로는 10번째 대기록이다.

지난 2005년 인천을 통해 프로에 뛰어든 최효진은 포항, 서울을 거쳐 지난 2015시즌부터 전남에서 뛰고 있다. K리그 통산 23골 29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최효진은 "프로통산 400경기를 달성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전남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 그리고 절 믿어주시는 전경준 감독님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믿음에 보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고 동료들과 함께 팀의 목표인 승격을 꼭 이뤄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우즈, 미컬슨에 유쾌한 설욕

필 미컬슨(왼쪽)이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메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더 매치: 챔피언스 포 채리티'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매닝 vs 미컬슨-브래디 2대2 매치
홈 코스에서 1홀차 짜릿한 승리
코로나19 극복 기금 248억원 모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가 1년 반 만에 다시 성사된 일생의 라이벌 필 미컬슨(50·이상 미국)과 맞대결에서 지난 패배를 설욕했다.

우즈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메달리스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더 매치 : 챔피언스 포 채리티(The Match: Champions for Charity)'에서 미국프로풋볼(NFL)의 '전설' 페이턴 매닝(44)과 팀을 이뤄 미컬슨-톰 브래디(43) 조를 한 홀 차로 따돌렸다.

2018년 1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900만 달러 독식을 놓고 열린 첫 '일대일 맞대결' 이벤트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미컬슨에 졌던 우즈는 이번에는 홈 코스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전반 9개 홀은 4명이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더 좋은 성적을 낸 선수의 스코어를 해당 홀의 팀 점수로 기록하는 포볼 방식으로 열렸다.

우즈-매닝 조가 3번 홀(파5) 우즈의 버디로 기선을 제압한 이후 줄곧 앞섰다.

4번 홀(파3)에선 우즈가 티샷을 가장 가까운 홀 2.5m가량에 붙이고, 매닝도 7m 넘는 버디 퍼트를 떨어뜨려 두 홀 차를 만들었다.

6번 홀(파4)에서는 격차가 세 홀로 벌어졌다.

후반은 각자 티샷을 한 뒤 더 좋은 위치에 떨어진 공을 택해 이후 같은 편의 두 명이 번갈아 샷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끌려다니던 미컬슨-브래디는 11번 홀에서 첫 승리로 반격했다.

342야드짜리 파4홀인 11번 홀에서 미컬슨이 호쾌한 티샷을 그린 뒤쪽 프린지에 보냈고, 브래디가 이글 퍼트를 넣어 두 홀 차로 쫓아갔다.

14번 홀(파4)에서는 브래디가 절호의 버디 기회를 놓쳤으나 매닝의 짧은 파 퍼트가 홀을 외면하며 격차가 한 홀로 줄었다.

16번 홀(파3)에선 두 팀이 비긴 가운데 브래디와 미컬슨이 약 2m, 매닝은 50㎝도 되지 않는 곳에 티샷을 보내 날카로운 샷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후 17번(파5), 18번 홀(파4)에서 두 팀 모두 파를 기록해 우즈-매닝의 승리가 확정됐다.

애초 이 경기의 모금 목표는 1000만 달러(약 123억원)였으나 온라인 기부 금액에 힘입어 두 배인 2000만 달러를 모았다.

/연합뉴스